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8월 금통위

“백투백이 필요할 만큼..”

- 8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00%로 인상. 2회 연속 인상으로 ‘백투백’
- 큰 폭의 성장률 전망 상향이 “다했다”: 26년 3.3%, 27년 2.9% 전망
- 4Q 1회, 내년 1Q 1회 총 2회 추가 금리 인상. 최종금리 3.50% 예상

2026년 8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00%로 25bp 인상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3.00%로 0.25% 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7월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른바 ‘백투백(back to back)’ 인상이다. 이에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2025년 2월과 5월 총 4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bp 인하, 변경한 바 있다.

해당 결정은 동결을 주장한 1인의 소수 의견으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백투백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만큼..”

8월 금통위를 앞두고 금융시장에서는 거의 역대급으로 서로 의견들이 엇갈렸다. 지난 7월 기준금리 인상 개시 이후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란 인식은 공통적이었으나, 인상의 보폭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다.

연속 인상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되는 해당 논란의 기저에는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눈높이 차이도 적잖게 영향을 미쳤다. 즉 연속 인상을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최종금리를 3.50%로 예상했다면, 8월은 쉬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최종금리를 3.25% 정도로 예측하는 경향이 컸다.

결국 현재의 경기 여건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률 전망치 상황과 같은 낙관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연속 인상 여부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사는 올해(26년) 예상되는 GDP 성장률이 기존 한은 전망치 2.6%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27년) 성장률 역시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웃돌 것이란 경기 판단에 근거해 8월 백투백 인상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당사의 예상대로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7월에 이어 8월에 연속 인상된 것에 대한 평가는 “연속적인 인상을 감당할 정도의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인상의 범주를 크게 뛰어 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는 이번 연속 금리 인상을 통해 최종금리 수준 역시 3.50%로 제시한다.

실제 이번 금통위 및 신현송 총재의 기자회견에는 연속 인상의 배경으로 ‘매우 큰 폭의 성장’을 꼽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단순히 높은 성장률 수치 전망뿐만 아니라 내년 까지도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며 높은 성장을 통한 소득 개선과 수요 측 물가 압력 등과 같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는 부분들까지 함께 언급됐다.

지난 7월 인상 당시 신총재가 직접 성장, 물가, 금융안정(부동산, 환율) 등이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방향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매우 매파적인 내용들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성장률 전망 상황이 “다했다”: 26년 3.3%, 27년 2.9% 전망

통화정책 방향이나 신현송 총재의 기자회견 곳곳에서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확인됐지만 사실 당사는 이번 금통위에서의 확인된 향후 통화정책기조에 대한 단서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된 수치에서 모두 나왔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2026년 GDP 성장률의 기존 2.6%에서 3.3%로 크게 상향한데 이어 2027년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기존 2.1%에서 2.9%로 높였다. 일제히 잠재성장률 전망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해당 숫자의 발표 만으로도 매파적인 통화정책 행보 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동시에 신현송 총재는 한은 내부적으로 현재 잠재성장률 및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추정치를 점검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혀 큰 폭의 성장률 개선이 잠재성장률의 상향 조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은 헤드라인 기준으로 2026년과 2027년년을 각각 2.7%, 2.3%로 기존과 동일한 수치를 유지했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5%로 기존 2.4%와 2.3%에 비해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급한 인상 이후 숨고르기 예상. 점도표도 ‘질서정연하’ 상황

성장률 및 근원 물가 전망치에 대한 상황을 통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입장을 시사한 것과는 별도로 통화당국은 추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나 폭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백투백 인상을 이번 달에 진행한 만큼 추후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남겼다.

당사는 이번 6개월 이후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점도표가 이를 시사한다고 평가하며, 앞선 2월과 비교할 때 점도표가 큰 충격 없이 ‘질서정연하게’ 상향 조정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당사는 올해 중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겠으나 그 시기는 4분기 중에서도 후반부인 11월로 예상하며, 이후 추가 인상이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분기로 예상한다(최종금리 수준 3.50% 예상).

백투백 인상이라는 급격한 인상이 이뤄졌지만 추후 인상이 예상되는 시기까지는 3개월 가량의 시차가 확보된 만큼 시장금리는 이번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을 정책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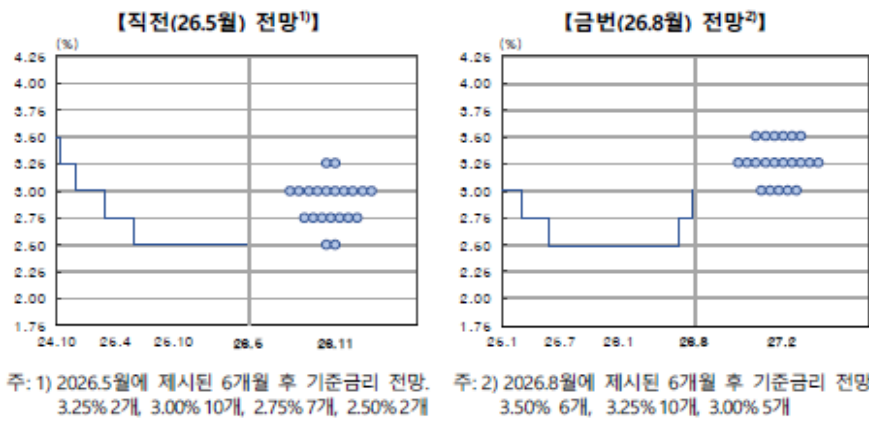
이에 시장금리 역시 단기적인 정점 확인 모드로 인해 일정 수준 하향 안정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1개월 전후 관점에서 국고 10년 금리의 하단 타겟을 4.20%로 제시한다.

2026년 8월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중동지역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 투자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 통화정책 및 중동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글로벌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기업 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체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중동사태의 전개양상, AI 투자 전망,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경제는 수출 및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각각 2.6%, 2.1%)를 큰 폭 상회하는 3.3% 및 2.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 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및 내수 파급 정도,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 물가를 보면,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2.8%로 낮아졌으나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및 내구재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2.6%로 높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안)은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의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과 같은 2.7% 및 2.3%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2.4%, 2.3%)를 상회하는 2.5%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및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완화 등으로 외환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국고채금리는 국내경제 성장세 확대, 미 국채금리 및 국제유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다. 주가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급락하였다가 일부 반등하였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며, 가계대출도 상당폭 증가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수출 및 투자 호조 지속, 소비 회복세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그간 누적된 비용압력 전이 효과, 수요측 압력 증대 등으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 금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금융통화위원 6명은 찬성하였으며, 황건일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026년 8월 금통위원의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